**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기쁨**

**4/22 월요일**

***아침의 누림***

**히 12:2**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엡 5:25**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히 9:28**
**28**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벧전 2:24**
**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요 1:29**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 10:11**
**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요 12:34, 31-33**
**34** 무리가 예수님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려 올려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입니까?”라고 하니,
**31**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32**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33**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를 알리신 것이다.

---

 에베소서 5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구속을 위한 것이자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이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따르면, 주님의 찔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이며, 이 생명의 분배를 통해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5권, 그리스도, 메시지 70, 111쪽) 108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들에 대한 하나의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영원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동일한 희생 제물들을 자주 드렸다(히 10:11).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것이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죄들을 제거하는 일이 성취된 것은 그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 그리스도는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 그분 자신을 유일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애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은 죄들을 제거하는 일이 성취되었다는 표시요 증명이다(히 1:3). 그분은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 만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다음 하나님의 어린양에게 담당시키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한 번 죽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다(사 53:5, 11).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에서 ‘나무’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곧 구약에 예언되었듯이(신 21:23, 갈 3:13)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데 사용된 로마의 사형 도구를 말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죄들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적인 행위로 지은 죄들을 가리키는 데 비해, 요한복음 1장 29절의 죄는 출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기까지 하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고후 5:21).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죄를 직접 체험하거나 접촉하여 체험적인 방식으로 죄를 아신 것이 아니었다(비교 요 8:46, 벧전 2:22, 히 4:15, 7:26).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가 되시어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일을 통해 이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내시고 그의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요 12:31)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신 일에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난 것이 포함되었음을 보여 준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했을 때 사탄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탄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쫓아내고 있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시는 데 사용하신 방법이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일을 통해 한 알의 밀로서 죽음 안으로 떨어지시어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요 12:24)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은 그분 안에 있던 신성한 생명을 해방했다. 한 알의 밀로서 그분께서 죽으셨을 때, 그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이들을 소생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 드려질 한 떡으로 함께 섞일 수 있는 많은 밀알을 산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고전10:17).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5권, 그리스도, 메시지 70, 118-119쪽, 메시지 71, 123-124, 127쪽, 메시지 72, 143-144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개정판, 4단계, 1권, 17과*

**4/23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골 2:13-15**
**13**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14**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 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15**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엡 2:2**
**2** 그때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사 25:8**
**8** 그분께서 죽음을 영원히 삼켜 버리시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의 눈물을 닦아 내시며 그분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까닭이라.

**고전 15:26**
**26**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요 5:17**
**17**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롬 7:4, 6**
**4**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낡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빌 3:12-14**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

 골로새서 2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셨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보아야 한다. 그 시점에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었다. 구주와 죄와 사탄과 우리와 하나님이 모두 그곳에 있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셨다. 그분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위에 모여들었다. …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규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들을 이기셨다. 분명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동안 그분 주위에 몰려들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두 분 모두는 일하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죄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규례와 더불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위에 모여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한 일하고 있었다. 만일 그들이 바싹 달라붙어 압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벗기실 수 있었겠는가? ‘벗기시어’라는 말은 우리의 옷이 우리의 몸에 밀착되어 있듯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 분께 바싹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들이 수치당하게 하시며, 그들을 이기셨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3, 219-220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시점에 일어난 전쟁을 묘사해 준다. 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수고하고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동시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로 분주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언급된 승리는 전쟁을 함축한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계시는 동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방해하려고 찾아왔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바싹 달라붙어 압박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벗기셨고, 그들을 이기셨으며,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수치 당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창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시점에, 하나님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이에 맹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벗기셨고 그들을 이기셨다. 이 절들에 담겨 있는 바울의 사상에 따르면, 율법과 천사들은 십자가를 통해 제쳐졌다.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악한 천사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벗겨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분의 경륜 안에는 율법을 위한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천사 통치자들을 위한 여지도 없다. 골로새 사람들이 규례를 따르는 것과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 … 이 두 가지를 교회 안에 퍼지도록 허용한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신다. … 하나님께서 율법과 천사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선택받은 우리만 그분과 함께 있다. 더 이상 조건과 규정과 요구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곳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살아나기 위해 이곳에 있다. 우리는 율법과 천사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그들을 벗기셨고 이기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승리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나 천사들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 곧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3, 220-223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3*

**4/****24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계 19:7**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엡 4:13-15**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히 6:1**
**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 16:18**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딤전 4:15-16**
**15** 그러한 일들을 실행하고 그러한 일들에 투신하여,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16**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할 때, 그대 자신을 구원하고 또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7:22**
**22**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그분의 아내’는 교회(엡 5:24-25, 31-32), 곧 그리스도의 신부(요 3:29)를 가리킨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천년왕국 동안의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된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아내인 신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천년왕국 이후 영원토록 있게 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양의 아내는 아벨로부터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의 집합체이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기는 이들의 집합체가 요한계시록 19장7절에 있는 아내이며, 이들은 그리스도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이들은 각각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신부이다. 이런 방면에서 볼때 건축이 필요하다. 이기는 이들은 생명이 성숙한 이들일 뿐 아니라 신부로서 함께 건축된 이들이다. 그리스도는 각각의 믿는 이와 개별적으로 결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보다 그분은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로 구성된 그분의 단체적인 신부와 결혼하실 것이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져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건축되고 함께 연결되어 영광스러운 교회,곧 주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될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30-131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또한 금등잔대인 교회(계 1:20)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비록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과는 반대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이나 악을 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생명나무, 삼일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한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든, 아니면 교회 집회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살아 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산다면, 우리가 살아 내는 것은 하나님, 곧 빛을 발하는 순금으로 상징되신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리스도는 만족을 얻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만족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부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다.

 결혼식은 주님의 다스리심 곧 왕국을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식에 초대된 모든 손님이 단체적인 신부이자 신랑의 공동 왕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신랑은 온 땅을 자신의 왕국으로 취하실 것이며, 따라서 그분께는 분명히 그분의 공동 왕들이 될 하위 왕들(sub-kings)이 필요하시다. 그분의 모든 공동 왕들은 그분의 단체적인 신부일 것이다.

 공중에서 있을 결혼식은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결혼식 후에 결혼 잔치가 있을 것이다. 항상 결혼 잔치가 결혼식보다 훨씬 더 길다. 마태복음 22장은 결혼 잔치가 천년왕국일 것임을 보여 준다. 이기는 이들에게는 천년왕국의 천 년이 결혼 잔치일 것이다. 주님께는 천 년이 하루와 같으시다(벧후 3:8).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은 또한 천 년 동안 왕들로서 다스리는 데 참여할 것이다. 우리의 왕께서 신랑이 되실 것이고, 그분의 공동 왕들인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것이며, 천 년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결혼 잔치와 신혼 기간이 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왕국을 보상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이기는 이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결혼 잔치일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31-132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3권, 교회, 메시지 213;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4/25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계 19:8**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마 22:11-12**
**11** 그런데 왕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 ‘친구여, 왜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소?’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였습니다.

**골 3:10-14**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

교회가 극심한 하락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살고 심지어 그분을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 내는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마포 옷(계 19:8)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신 그리스도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깨끗한’이라는 단어는 본성을 가리키고, ‘빛나고’라는 단어는 표현을 가리킨다. ‘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의로운 행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의(고전 1:30)는 객관적인 의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기는 성도들의 의는 주관적인 의이며(빌 3:9), 이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마포 옷은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 나타내는, 우리의 이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37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데에는 그리스도 자신인 의로 충분하다. 이 의는 단수형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사용된 ‘의’는 복수형인데, 이것은 이 절에 언급된 의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한다. 그보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내시는 의로운 행실, 매일의 행함,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속생명에 의해 산출된 이것이 우리가 입는 흰 세마포 옷이다. 잔치에 가려면, 특별히 결혼 잔치에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합당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참석하려면 합당한 옷이 필요하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37-138쪽)

 이기는 믿는 이들이 입는 세마포 옷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결혼예복과 동일하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믿는 이들에게는 두 벌의 옷이 필요하다. 하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보상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를 덮어줄 겉옷이 필요하다. 이 겉옷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탕자에게 입혀진 옷이다. … 이 겉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이 겉옷, 제일 좋은 겉옷, 우리의 의이시자 우리의 의롭다 함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이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두 번째 옷이 필요한데, 이 옷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결혼 예복이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세마포 옷이다. 이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이 옷은 우리의 보상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부여해 준다. 첫 번째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두 번째 옷은 우리의 보상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두 번째 옷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다. 이 옷은 우리가 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계 19:8).

 두 번째 옷은 또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뛰어난 의이다. 이 절에서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의는 객관적인 의,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겉옷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의는 주관적인 의, 곧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로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 우리는 그분을 살아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시도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 주관적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진리 공과, 개정판, 4단계, 4권,56과, 78-79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개정판, 4단계, 4권, 56과*

**4/26 금요일**

***아침의 누림***

**엡 5:25-27**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후 5:17**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계 21:9b-11**
**9b**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아 4:7**
**7** “내 사랑이여,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대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다오.

**아 6:10**
**10** ‘새벽처럼 밝아 오고 달만큼이나 아름다우며 해만큼이나 맑고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하는 이 여인이 누구인가?’ ”

---

 나는 우리가 주님께서 신부를 예비하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더욱이 나는 우리가 현재 이 예비되고 있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 요한계시록 19장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과 에베소서 5장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에베소서 5장이 없다면 신부가 예비될 길이 없으며,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이 성취될 길도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교리와 옛사람과 점과 주름에 관해 말씀하신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낡음과 결함이 제거되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소중히 돌보며 거룩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한 모든 것이 제거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흠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19장에 있는 신부가 될 것이다. 신부가 예비될 때,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실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과정 안에 있다! 우리에게 신부로 예비되는 길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되는 길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는지! 그리스도는 규례와 교리와 옛사람과 점과 주름이 없는 교회를 얻으실 것이다. 이러한 교회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5, 962-963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교회가 드려질 때, 교회는 새사람이 아니라 신부일 것이다. 새사람인 교회에게는 기능이 필요하지만, 신부인 교회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4장에서 성장은 새사람의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5장에서 아름다움은 신부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점과 주름은 교회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점과 주름이 있을 때 교회의 아름다움은 매우 많이 훼손된다. 어떤 사람이 신부에게서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또한 마땅히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4장에 나오는 새사람의 기능과 일상생활로부터 5장에 나오는 점과 주름이 없는 신부로 드려지는 문제로 전진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면, 결국 몸의 지체인 우리에게서 그 기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생각의 영에 따라 뛰어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점과 주름 때문에 주님의 눈에 아름답지 못할 수 있다.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 교회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한 후, 바울은 전진하여 5장에서 신부인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5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창조나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일상생활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는 교회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때, 교회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남자이시며, 이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께는 그분과 어울릴 수 있는 신부가 될 교회가 필요하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교회는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고, 모든 점과 주름이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기능으로부터 5장의 아름다움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다. … 결혼식 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움이지 능력이 아니다. 오, 교회는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소화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동화함으로써 아름답게 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더 많이 체험할수록, 그리스도는 더욱더 우리의 점과 주름을 그분의 요소로 대치하실 것이며, 더욱더 그분의 풍성과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그분 앞에 세워지도록 준비될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5, 863-864, 866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5*

**4/27 토요일**

***아침의 누림***

1. **엡 6:17-18**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2. **느 8:10b**
**10b**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3. **빌 4:4-7, 12-13**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5**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요한계시록 19장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신부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전투원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있는 군대들은 17장 14절에 있는 부름받고 선택받은 믿는 이들이다. 그들은 또한 신부이자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다(계 19:7-9). 결혼식 후에 모든 손님들은 군대가 될 것이다. 신부로서 우리는 반드시 점이나 주름이 없이 아름다워야 하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전투원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우도록 무장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우리는 이기는 이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자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로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웃을 입고 있음'을 본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웃'(19:8)으로 된 결혼 예복이 전쟁을 위한 전투복일 것이다. 하늘에 속한 군대들인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성하는 이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분의 군대로서 그분을 따르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싸워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온갖 장애 물을 이겨 온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는 최후의 전투에서 그리스도의 공동 전사들이 될 것이다. 이들이 곧 그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 공급을 주심으로써, 그들은 그분의 공동 전사들이 되었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요한계시록, 메시지 426, 155-156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웃이 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상을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세마포 웃은 두 번째 옷이다. 이기는 이들의 이 두 번째 웃은 그들에게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줄 뿐 아니라(19:8-9), 주님의 원수와 맞서 주님과 함께 싸울 자격도 준다. 그러므로 결혼 예복이 전투복이 된다. 두 번째 옷은 우리에게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쁜 아니라 군대에 참여할 자격도 준다. ... 이 옷은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의로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이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옷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싸우고 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가 그리스도임을 가리킨다.

 영적 전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몸의 문제이며, 몸은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전쟁을 하는 단체적인 한 실체이다. 현대 군대에서는 그 어면 군인도 홀로 전쟁터로 나가지 않는다. 그보다 그는 잘 훈련받고 완전히 무장된 군대의 일부로서 싸운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울 수 있으려면 먼저 단체적으로 군대로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떨어져 고립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보호를 받는 유일한 길은 군대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은 영양 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결과를 낳지만, 6장에서 말씀은 죽이기 위한 것으로서 교회가 단체적인 전투원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을 죽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매일 온갓 종류의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할 때 부정적인 요소는 죽음음 당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원수와 싸우기 위한 검으로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검이 된다.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검이 아니다. 정확히 말해서, 검은 직접적으로는 그 영이며, 그 영은 말씀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 사탄을 처리하려면 성경 말씀이 반드시 그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원수를 죽이는 검으로 사용하려면, 말씀이 우리의 체험에서 반드시 그 영이 되어야 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6.156-159쪽)

*추가로 없을 말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4*

1.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 메시지 424*

**4/28 주일**

***아침의 누림***

1. **살전 5:16-24**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19** 그 영을 끄지 마십시오.
**20** 신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21** 모든 것을 살펴보아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22** 모든 종류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2. **찬송: 852 (英) 주님의 거처인 교회  (中:616)**

**1** 주님의 거처인 교회 사랑스런 교회
주의 기쁨 또 즐거움 내 사모하는 곳.

**2** 주님은 교회 위하여 자신을 주셨네
나 또한 주 뜻 위하여 내 몸을 드리네.

**3** 교회 위해 주님께서 내 생명 되셨네
주의 갈망 이룰 교회 이는 나의 생활.

**4** 교회는 주님의 배필 주의 몸 또 신부
내 마음 모두 드릴 곳 영원한 안식처.

**5** 교회 안에 주님께서 내 누림 내 증언
나 주님의 소유 될 때 주 만족하시리.

**6** 주님의 거처인 교회 사랑스런 교회
나 영원히 여기 살며 떠나지 않으리.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4:1-7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16-17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Jesus Made Like His Brothers in All Things

Scripture: Heb. 2:16-18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 13

Supplemental Reading: None

Questions:

1. Why was Jesus made like His brothers in all things?

2. What are some aspects of Jesus made like His brothers in all things, especially as revealed in Scripture?

3. In Heb. 2:17, explain the phrase "in the things pertaining to God" in the context of the verse.

4. How does Jesus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